

민주, 전대 선거운동 전면 중단...“호우피해 복구 총력”

전당대회는 29일 예정대로
 합동연설회 온라인·취소 검토
 12일 긴급 당정협의회의
 59년만의 '4차 추경' 논의
 광주 13일, 전남 19일
 시·도당위원장 선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10일 “전국적인 비 피해로 인해 이번 주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8~9일 호남지역 대의원대회를 연기한 데 이어 충남·세종·대전(14일), 충북(16일) 대의원대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일단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하되,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는 다음 주 평일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함께 수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대변인은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전당대회 후보와 지도부, 의원들이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 몇 곳을 선정해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으로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 시장을 찾아 김순호 구례군수의 설명을 들으며 침수 피해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전남 구례군 오일장을 찾아 침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의원들이 세비 일부를 성금으로 조성해 수해 복구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휴가 시즌으로 2주간 쉬기로 했던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오는 12일 긴급하게 여는 방안을 놓고도 총리실과 협의 중이다.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

년 태풍 때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회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이미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4차

추경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해당 부처의 다른 예산을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2조원 상당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 검토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문제 등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3일 시장 대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시장 위원장 단독 후보인 송갑석 의원을 시장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김승남 후보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구례 수해현장 찾아 몸담춘 여야 “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대책 최선”

정세균 총리 구례시장 찾아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대표
 통합당 지도부 총출동
 전남도당 120여명 복구활동

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응급복구를 도와드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와 여야 의원들이 10일 수해 피해가 극심한 전남 구례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구례로 총 출동해 당의 불모지인 호남에 적극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구례읍 5일 시장 등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구례출신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과 차기 도당위원장에 합의한 추대된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부인 정옥금 씨, 지방의원, 당직자, 핵심당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에 나선 당원들은 이날 폐허가 된 상가와 주택에 들어가 가재도구·판매용 농산물 등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

미래통합당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은 호남행을 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구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들은 구례군청에서 피해, 복구 상황 등을 브리핑 받고 대피소와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이 보수당의 불모지인 점에서 호남 민심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로도 해석된다. 통합당은 또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에서 대대적인 수해 복구 봉사활동도 계획 중이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수해 피해가 극심한 구례와 남원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주택문제가 당면과제...부동산감시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

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고 밝

혔다. 또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마치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모기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